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8면
수제화 장인의 요람 '문 활짝'

전주매일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음 2월 24일) 제27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기굴착기 생산공장 김제서 '첫 삽'

호룡, 지평선산업단지 내 249억원 투입 82명 고용
일본 주도 소형 굴착기시장 탈환 획기적 전환점 될 듯

지난 2일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 산단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장현 호룡 대표이사, 박준배 김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룡 전기굴착기 양산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호룡 전기굴착기 양산공장 기공식이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박장현 호룡 대표이사,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지역주민이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에서 지난 2일 개최됐다.

호룡은 먼저 1단계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내 1만4,000평에 249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82명을 고용해 국내 최초 전기굴착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는 동 산단내 2만평에 500억원을 투자,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3년에 준공한 후 150명을 신규고용할 계획이다.

전기 굴착기는 2020년 최초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디젤 굴착기에서 전기 굴착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호룡 박장현 대표이사는 "전기구동 굴착기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술력을 갖춘 소수의 제조사들이 시장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호룡의 양산공장 구축을 계기로 기술적 우위와 대량 생산능력을 갖추고 소형굴착기 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룡의 소형 전기 굴착기 생산은 현재까지 일본이 주도해왔던 소형 굴착기 시장을 탈환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국내 판매 3.5톤급 굴착기는 3,087대이며, 이 중에서 수입은 5개사(얀마, 코벨코, 구보다, 볼보, 밥캣) 2,886대이며, 국내 2개사(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201대이다.

호룡은 3.5톤급 전기 굴착기 보급 확대를 통해 2024년까지 소형 굴착기 시장점유율을 50%까지 높여 617억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호룡이 이번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김제 지평선 산단내 3만4,000평에 749억원을 투자해 전기 굴착기를 양산하면, 이와 연관된 협력업체 20여개 기업을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및 백구 특장차 전문화단지에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비도로용 차량(건설기계 등)은 도로용 차량과 비교 시 등록대수가 약 2.15%에 불과한데도,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질소산화물 10.2%, 초미세먼지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호룡의 전기 굴착기는 시내 상하수도 공사나 보도블럭 건설 공사 시 내연기관 건설기계와 비교할 경우, 매연 배출량이 거의 없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크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의 도심형 소형 굴착기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운용 중인 5톤급 미만 소형굴착기 중 30%를 전기굴착기로 대체할 경우 향후 10년간 2,604억원의 국가적 환경편익이 발생된다.

송 지사는 "지난 3월에 선정된 전북도 산업단지 대개조(사업규모 총 39개 사업 4,945억원)와 연계해 김제 특장차 중심의 농공단지 혁신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농공단지 중심의 산단 대개조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포스터 꼭 게시해주세요

전북도, 식당·카페 등 6종 6만2000부 제작 배부
기본방역수칙 강화 오늘부터 모든 시설에 일괄적용

기본방역수칙 포스터

전북도가 5일부터 강화되는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에 6종 6만2,000부의 포스터를 일괄 제작해 배부한다.

도는 시설 운영자가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확인해 직접 게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 6종을 직접 제작해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자에게는 도민들이 기존 방역수칙과 강화된 방역수칙 간에 혼선이 있을 것이 우려돼 5일 시행에 맞춰 게시토록 했다.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행정벌칙이 안내돼 있으며, 시·군 공무원들이 포스터를 게시하기 전에 시설별 허가면적 확인 후 동시 이용가능 인원을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추가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다.

최근 도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명대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400~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이 4개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방역수칙을 더해 총 7개로 강화됐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과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피해 취약 소규모 농가 경영불안 해소

전북도, 농가당 3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전북도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에 나선다. 도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5일부터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이다.

해당 농가는 경작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소재한 농·축협과 품목조합 및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바우처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원한다.

만약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이 가능하다.

바우처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선불카드로 수령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 기한을 경과하면 잔액은 소멸된다.

바우처 사용은 농식품부가 공고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농업관련 공구, 연료 및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이 공고돼 있다.

한편,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4억2000만원 확보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에 17개소(공공 4, 민간 13)가 선정돼 국비 포함 총사업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진안 숲속캠핑장 등 5개소, 화재안전성 확보에는 무주 더스위트글램핑 등 6개소, 그리고 진안 용담댐오토캠핑장 등 6개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체계 구축을 지원받는다. 이들 사업장에는 소화기함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이 지원된다. /유호상 기자